



# 베트남서 서울관광 홍보... 박항서 감독도 힘 보탠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3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 사이공에서 서울과 호치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서울관광설명회 'SOULFUL SEOUL NIGHT(소울풀 서울 나이트)'를 열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체 방문객 중 7위일 정도로 관광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타깃 시장이다. 2019년 약 55만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해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41%의 성장률을 보였다.

베트남은 한국 대중문화와 뷰티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시장이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48.1%로 일본(16.1%), 프랑스(10.8%)를 제치고 5년 연속 베트남 최대 화장품 수입국으로 자리 매김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실시한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 호치민서 여행업계·미디어 대상 서울관광 세일즈 박 감독 홍보대사로 위촉해 서울관광 전방위 홍보

남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별 소비 비중은 뷰티(42.2%), 드라마(38.6%), 음악(38.5%)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관광설명회 현장에서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서울관광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오 시장은 "박항서 감독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과 서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서울과 베트남의 가교로서 '매력 특별시' 서울을 알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관광설명회 'SOULFUL SEOUL NIGHT'는 코로나19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서울관광 재계의 신호탄을 알리는

행사로 서울관광 트래블마트를 겸해 열렸다.

서울관광설명회 현장은 한강 피크닉을 테마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바다에는 잔디를 깔고 벽면에는 한강의 밤하늘을 띄우고 피크닉의자와 테이블을 놓았다. 서울시는 서울의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와 '서울뷰티먼스' 등 하반기에 열릴 서울의 다양한 축제를 소개했다.

트래블마트에는 서울의 관광업체 10개사와 현지 여행사 50개업체가 참여해 서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오 시장은 행사 시작을 알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국은 관광



베트남에서 축구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오른쪽)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서울관광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분야에서도 중요한 동반관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청와대, 세빛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아름다운 서울의 명소와 한류·뷰티 등 즐길거리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호치민에 이어 5일 말레이시아에서도 '서울관광설명회'를 열어 서울관광 세일즈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 인천 남동구, 대형 전광판 무허가 '꼼수 운영'

## '길이 10m뎀 허가 의무' 규정 피하려 0.2m 줄여 설치 향촌동 불법 전실 등 잇단 논란... 불통행정 비난 빚발

인천 남동구가 분청 열 평생학습관 대로변 우측 외벽에 길이 9.8m, 높이 2.6m 대형 전광판을 제작해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들어났다. 길이가 10m이면 의무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0.2m 줄여 꼼수를 피하고 허세를 사용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광판은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남동구는 "공공의 목적이면 무허가로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은 제2조, 3조, 9조, 29조와 다른 목적이다.

각 조의 시행령 중 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공의 목적은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지하도 나)철도역 다)지하철역 라)공항 마)항만 바)고속도로로 분리가 된다. 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에 설치된 전광판은 공공의 목적과 차이가 있다.

남동구가 주장하는 것은 '무허가'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생학습관이 4층 이상이어서 허가가 필요하다. 꼼수 전광판은 자치단체가 법위에 군림한 행정으로 법 정의와 맞지 않다.

자치단체 소식통에 따르면 현수막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 대형 전광판은 허가-신고로 통해 사용함이 맞고 시행령에도 시장 등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적 시되어 있다.

민선8기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구청 소유의 건물이 무허가 불법광고판을 시설해 사용했다면 결재 라인 등 해당부서를 직권남용 조치와 행정 처벌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 일탈도 파악하지 못한 구청장을 두고 실망이크다는 여론이다.

지역 내 향촌동 불법 전실부터 남동구청이 그간 불법 행위에 대해 직무 유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 남동구청가 무허가로 설치한 전광판.

스카이데일리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이 같은 엉터리 행정을 구무총리실에 공의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에 대해 불통이란 소리가 나 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1일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재임 시 설치한 만수산 무장애길 준공 기념식수 표지만이 밝혀 없어졌다.

또 길명원 장례식장 이전으로 주민 피

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허가를 받아 주는 등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구민과 친구가 되겠다는 박 구청장의 말은 허세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배신감이 커진 주민들은 "박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공약사업 치적 쌓기만 열을 올리고 남동구가 적자도 시임에도 사업을 강행한다"며 "불법부터 정리하라" 촉구하고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행정기관

부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충격이크다"며 "박 구청장이 행정 전반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침묵은 불통으로서 소통이 없는 언박자 행정에 대해 우려감이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별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 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 등을 말한다.

1.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이라고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 5제곱미터(1만5125평에 해당) 광고물 등 간판은 제외된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하면 불법이다. 공공목적 등으로 포장하여 불법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주민들은 "감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자치단체"라며 "약자만 단속해 주민 불만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yhkim@skyedaily.com

#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위한 동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용인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집적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인력양성·집적화단지조성 등을 위한 지원 방안 △용인

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4년 주기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련 분야 기업인,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육성계획 수립 및 자문을 맡는다.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도 추진한다.

시는 10월까지 관련 행정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용인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취임 초부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을 강조해 온 이상일 용인시장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며 "용인시가 추진할 반도체산업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기영 기자 ykyoung@skyedaily.com

# 인천시 '서민경제활성화 TF' 긴급 구성

## 현장 중심·소통 행정 강조

인천광역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안영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3일 긴급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4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파악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을 마련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원자재 공급망 차질 등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물가와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특히 고물가로 어려움이 더 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TF는 '총괄대응팀·소상공인지원팀·기업지원팀·민생복지지원팀·물가지원팀' 등 5개팀으로 구성해 모든 실적이 참여토록 했다. 또 인천연구원·인천신용보

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관광공사·인천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들도 참여한다.

이번 TF팀은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조한다. 시장·부시장·실국장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시 정책 방향과 추진사업들을 설명하고 기업단체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필요사업의 경우 시급한 사항은 올해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고 사전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이나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TF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yhkim@skyedaily.com

## 석면 자재 건축물 '무석면'으로 성남시, 내년 말 90곳 교체 완료

경기도 성남시는 공공청사 등 시 소유의 석면 건축물을 무석면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말까지 90개소의 석면 해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7년간(2015~2021년) 58억5900만원을 들여 62개소 건축물의 석면 5만5705㎡ 규모를 해체 공사한 데 이어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소를 추가로 정비 중이다.

공사 대상은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수내3동 행정복지센터·성남종합운동장 제2하키장·수질복원센터·정수장 등이며 석면 제거 면적은 3831㎡ 규모다.

해당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석면 자체 사용을 금지한 2009년 1월1일 이전에 지어 천정바닥·지붕·벽체 등에 '석면 텍스' 건축 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시는 5개월간 14억3800만원을 투입해 석면 건축자재를 뜯어내고 '무석면 텍스' 건축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성남시는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5년 해당 건축물 90개소의 석면 텍스 자체 사용 위치 등을 지도로 만들고 올해 8년째 석면 해체 공사 중이다.

연말에 이반 공사를 마친 뒤 성남시 소유의 석면 건축물의 78%(71개소)가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남은 19개소(석면 면적 2만4280㎡)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석면 해체 공사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 소유 건축물 모두 무석면 텍스 건축 자재로 시공해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영 기자 ykyoung@skyedaily.com



경기도 '경기천년' 걸러리는 제77주년 광복절 맞아 기획 전시를 마련했다.

## 경기도·경기도박물관 협업 77주년 광복절 특별 전시회

제77주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과 함께 특별한 기획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8일부터 9월7일까지 1개월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경기천년길 갤러리에서 '걷다+만나다, 경기도의 독립운동 유적과 인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복절을 맞아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경기도 독립운동가들의 송고함을 기리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전시회는 죽음으로 싸운 순국열사, 3·1만세 운동과 제암리 학살, 경기도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며, 총 3부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 현장이나 경기도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관화, 사진, 신문, 엽서, 영상물 등 100여점의 다양한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실제 일제강점기 유물 20여점도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람객들에게 스마트폰 도슨트 앱 '큐피커'로 해설도 지원한다.

송용욱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앞으로 도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ghllee@skyedaily.com